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30년 1피안타 4K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류현진, 제몫 해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세 번째 승리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입이 2-1로 앞선 7회말 마운드를 내려간 류현진은 토론토가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1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3승째(1패)를 따냈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92에서 2.72로 낮아졌다.

류현진은 최고 시속 92.2마일(약 148.4km)의 직구에 체인지업, 컷 패스트볼, 싱커, 커브를 고루 섞어던지며 마이애미 타선을 요리했다.

99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65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고, 삼진 8개를 속아냈다. 볼넷은 2개를 내줬다.

수 차례 위기를 만났지만, 류현진은 실점을 최소화하며 제 몫을 해냈다.

류현진은 1회말 2사 후 개릿 쿠퍼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해수스 아길라를 3루 땅볼로 처리했다.

2회말 선두타자 브라이언 앤더슨에 우전 안타를 허용한 류현진은 후속타자 코리 디커슨의 내야 땅볼 때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실점 위기를 만났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으로 2루 땅볼을 유도했는데,

MLB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6이닝 5피안타 1실점 ‘호투’

시즌 3승 수확, 토론토 승리 견인

데, 타구를 잡아낸 2루수 조너선 비아의 2루 송구가 부정확해 타자와 주자가 모두 세이프됐다.

류현진은 침착했다.

후속타자 루이스 브란슨에게 체인지업으로 2루 땅볼을 유도해 아웃카운트를 늘린 류현진은 흐르헤 알파로, 재즈 치점을 연달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을 막았다.

알파로에게는 6구 승부 끝에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유도했고, 치점에게는 볼카운트 1BBS에서 커브로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3회말을 삼자범퇴로 마무리한 류현진은 4회말 선두타자 아길라를 볼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내보냈다.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앤더슨을 삼진으로 잡은 류현진은 디커슨, 브란슨을 모두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토론토 타선은 5회초 투어데스 구리엘 주니어의 좌중월 투런포로 선취점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어진 5회말 추격하는 점수를 내쳤다.

5회말 선두타자 알파로를 삼진으로, 치점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존 베르티와 스티븐 마르테에 연속 안타를 맞아 2사 1, 2루의 위기에 몰렸다.

이어 쿠퍼를 상대한 류현진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허용해 실점했다. 쿠퍼는 류현진의 2구째 직구를 노려쳐 안타로 연결했다.

2사 1, 2루의 위기를 이어간 류현진은 아길라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았다. 류현진은 볼카운트 1BBS에서 커브와 체인지업으로 연달아 헛스윙을 유도해 삼진을 속아냈다.

류현진은 6회말에도 선두타자 앤더슨에 컷 패스트볼을 연달아 던졌다가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얻어맞았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디커슨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은 류현진은 브란슨을 2루 땅볼로 잡았다. 그 사이 앤더슨이 3루까지 진투하면서 류현진은 2사 3루의 실점 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류현진은 알파로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실점없이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7회말 AJ.콜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

토론토 타선은 류현진이 내려간 이후에도 추가점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토론토 불렌진이 이날은 류현진의 승리를 훌륭히 지켜냈다.

류현진의 호투 속에 2연승을 달린 토론토는 시즌 20승(16패) 고지를 밟았다. /뉴시스

전북·울산 주말경기… 올 시즌 우승 결정할 최대 분수령 예고

K리그1 시즌 1~2위 팀간 최대 승점차는 '4점'

이번 경기 결과 따라 격차 더 벌어질 가능성

전북, 5일 성남FC와 원정경기… '승점 3점 필요'

프로축구 K리그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선수 다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주말 경기가 올 시즌 우승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울산은 6일 오후 7시 홈구장인 문수축구장에서 광주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9라운드를 치른다.

선두 울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FC서울을 3-0으로 완파하고 승점 45점(14승3무1패)을 기록, 강원FC에 패한 2위 전북 현대(승점41)와의 격차를 4점으로 벌렸다.

울산은 11년 만에 K리그 복귀전을 치른 기성용의 서울을 상대로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청용이 선재골로 친정팀 서울에 비수를 꽂았고, 주니오가 정규리그 21호골로 득점 단독 선두를 달렸다.

9경기 연속 무패행진(8승1무) 중인 울산의 상대는 7위 광주(승점20)다.

승격팀 광주는 K리그2(2부리그) 득점왕 출신(19골)인 펠리페를 앞세워 올 시즌 선전하고 있다.

지난 18라운드 대구FC 원정 경기에선 펠

리페의 멀티골을 포함한 6-4 대승을 거두며, 역대급 화력을 자랑했다. 양 팀 합쳐 10골이 나온 건 K리그 역대 4번째였다.

2위 전북은 5일 오후 5시 30분 탄전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직전 경기에서 강원FC에 1-2로 패한 전북에겐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다. 하지만 상대는 지난 7월 시즌 첫 맞대결에서 2-2로 비긴 성남이다.

이번에도 발목을 잡힌다면 선두 울산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남은 시즌 역전이 어려워진다.

구스타보와 바로우가 가세한 공격은 괜찮으나, 시즌 도중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갑자기 떠난 국가대표 풀백 김진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 보인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개막 후 1, 2위간 최대 승점 차는 '4점'이었다. 6월 초엔 전북이 4점을 앞섰으나 현재는 상황이 역전됐다. 만약 이번 라운드에서 울산이 이기고 전북이 또 패하거나 비긴다면 '4점 벽'이 무너진다. /뉴시스

네이마르도 확진… 유럽축구계 코로나19 확산 '초비상'

폴 포그바·다비드 실바도 '양성'

유럽 축구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확산에 초비상이 걸렸다. '축구스타'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사진)도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챔피언' 파리생제르맹(PSG)이 소속 선수 3명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다.

선수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나, ESPN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 네이마르와 아르헨티나 출신의 앙헬 디 마리아, 레안드로 파레데스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선수는 지난달 24일 열린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패한 뒤 스페인 이비사섬으로 휴가를 갔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유럽 축구계를 덮치고 있다. 9월 예정된 유럽국가대표전인 UEFA 네이



션스리그와 새 시즌을 앞두고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가 늘고 있다.

네이마르에 앞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도 지난

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고 프랑스대표팀 소집에

서 제외됐다.

스페인에선 이번 여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떠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다비드 실바가 감염됐고,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된 올버햄튼(잉글랜드)의 공격수 아더 트라오레도 양성 반응을 보여 2차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 각국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2020~2021 UEFA 네이션스리그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